

추석 앞두고 무·배추 등 성수품 공급 50% 확대

정부, 농산물값 폭등 비상...수급·가격 특별 관리
과일·축산물도 오프라인 장터 2686곳으로 늘려

봄철 이상저온에 이어 여름철 지속된 폭염, 태풍 '솔릭'까지 겹치면서 올 추석 농산물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연중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1포기당 배추가격은 8월 상승 3593원에서 하순에는 5861원까지 올라 평년보다 51%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무 가격은 1개당 지난 8월 상승 2397원에서 8월 하순에는 2782원까지 올라 평년보다 9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사과와 아오리 10kg 기준으로 8월 하순 가격이 4만2000원 선이었다. 이는 평년보다 66% 비싼 가격으로, 배 역시 원할 15kg 기준 4만2000원 대로 평년보다 39%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소고기는 8월 하순 가격이 전년보다 8% 올랐고, 닭고기는 10% 올랐다. 밤도 지난해보다 39% 비싸졌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른 이유는 올해 봄철 이상저온에 이어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태풍 솔릭이 지나간 뒤에는 집중호우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 추진 기간을 예년의 추석 전 2주간에서 1주일 앞당겨 추석 전 3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에 나선다. 추석 수요가 많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은 평상시 하루 5369t보다 1.4배 많은 하루 7252t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책 기간 전체 공급량은 12만 수준이다. 대책 기간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공급량도 지난해(8만t)보다 51% 증가했다. 정부는 또 농협과 대형마트 등 온라인·직거래 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수요가 몰리는 과일과 축산물은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장터를 지난해 기준 2544곳에서

올해는 2686곳으로 142곳을 더 추가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도 추석 성수품 판매 방송을 전체의 50% 이상 집중 편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농업인 지원 대책으로는 통상 11월에 지급하던 농업직불금을 추석 전인 9월에 조기 지급할 방침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우수한 농축산물을 선물로 많이 찾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美·中 무역전쟁, 신흥국 리스크

2주 연속 외국인 순매수 지속

반도체 장비·미디어관련주 접근 유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지난주 국내증시는 대북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개정안이 1년여 만에 타결되고 캐나다와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했다. 지난주 국내증시는 수급측면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다.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1134억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시장에서 1681억, 선물시장은 3473억액을 순매수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도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환율 산정에 '역경기 대응요소' (counter-cyclical factor)를 도입하여 위안화의 약세와 자본유출을 억제하려는 중국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미국정부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위안화 절상 압력 및 신흥국 리스크가 완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증시로 유입되었고 한국도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기준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소식과 WTO 탈퇴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무역갈등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지난 31일 중국증시 외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국내증시는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20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부과가 여러 차례 언급됐고 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때와 같이 발표 이후 공청회까지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공청회 마감은 지난 7월 31일이었지만 관세 부과는 8월 23일에 이뤄졌다) 2000억 달러 관세부과에 대한 공청회 반증자료 마감일이 9월 6일인데 공청회에서 미국기업들이 공식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청하고 있어 실제부과는 중간선 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이다.

WTO 탈퇴 언급도 WTO 개혁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 23년전에 만들어져 비준통적 무역장벽(중국제조 2025)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측의 의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번주 국내증시는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내성 확인이 필요한 시기이며 아직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외국인 순매수 강도에 따라 코스피 지수 및 코스닥지수 상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순매수가 이번주에도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와 신약모멘텀을 보유한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스닥시장의 수급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낙폭과 대 경기민감 대형주의 저점매수보다는 5G 통신장비주와 중국 단체 관광객 추가허용 모멘텀주, 미디어·엔터관련주 등 단기 모멘텀이 있고 수급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관심주로 접근이 좋을 것이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민관 친환경·GAP 인증간담회 유기농 관계자등 40여명 참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2일 친환경·GAP 인증 관련 법령 개정과 인증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2018 민·관 친환경·GAP 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전남 소재 친환경·GAP 인증기관, 한국유기농업협회 광주전남지부,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남지회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농원원은 이들에게 친환경·GAP인증 관련 개정된 법령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친환경 인증단계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생산자 교육과 GAP관리 시설지정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참석자들은 친환경 명예감시원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소비자들이 혼돈 할 우려가 있는 친환경·GAP인증 로고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중신 지원장은 "농업발전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예비회원창업자 멘토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 화훼사업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aT센터에서 열린 '2018 A FARM SHOW'에서 예비 화훼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을 진행했다. <aT 제공>

전남 농·축협 조합장 200여명
여수서 '소중한 만남' 행사...초청 강연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은 지난 31일 전남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지부장, 농정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남농협 조합장 소중(珍中)한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한 토의'라는 주제로, 정종순 장흥군수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초청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태선 본부장은 "한국의 농업과 전남농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 "웃음 '소'와 가운데 '중'의 의미를 담은 것처럼 시종일관 웃음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산림조합 '일자리추진단' 발대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일 '일자리 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이날 업무 혁신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3000개 창출과 가치있는 산림산업 육성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산림조합을 조성키로 했다.

또 일자리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일자리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별 추진단과 선도 추진단을 우선 발족한 뒤 중앙회에 산림조합 '일자리 혁신 추진본부'로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 좋음,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4920-9300